

철원 '두루미 박사' **진익태** 씨



천연기념물 202호 두루미.

비무장 지대(DMZ)가 인근에 있고, 드넓은 평야에 낙곡이 많아 '새들의 낙원'이라 불리는 철원. 이곳 갈말읍 토성리에서 '철새 지킴이' '두루미 박사'라고 불리는 진익태(48)씨는 쫓소 50여마리를 키우고, 논 밭 8000여평을 경작하고 있는 복합영농인이다.

31대째 철원을 지키는 토박이 농사꾼인 그는 철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특히 두루미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 그는 농한기라고 하는 겨울에 더 바쁘다. 철새들의 삶의 터전인 철원평야를 누비며 먹이를 챙겨주는 등 보호활동을 한 지도 벌써 18년째다. 철새들을 홍보하고, 보호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탐조객들이 요청하면 안내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농한기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오히려 1년중 눈코 뜰새없이 가장 바쁘게 사는 때가 됐다. 그의 일과는 항상 빠듯하다. 새벽 4시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쫓소의 우유를 짜고 짬을 내어 농사일을 한 뒤 아침 7시 30분이면 철새를 지키기 위해 철원평야로 출근한다. 저녁 7시에 집에 들어와 다시 우유를 짰 뒤 그날 하루 일과와 자료를 정리하면 밤 12시에 취침에 들기 일쑤다.

"탐조 망원경에 포착된 새의 눈동자를 보면 그 순한 눈빛에 저절로 빨려들고, 깃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다"는 그는 1999년부터 직접 찍은 철새사진으로 엽서와 달력, 책자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또 철새 먹이구입을 위한 사진 전시회도 서울 춘천 철원에서 다섯차례나 개최했다. 98년에는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한·일 사진전에 초대되기도 했다.

2000년부터는 초등학교와 초등학교교사들을 대상으로 새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기 위해 철원 두루미학교도 열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탐조 요령과 준비물을 소개하고 철새 관련 용어를 비롯 철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혼자 하기에는 벅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웃들의 편지도 들었고 가정일을 등한시하다보니 부인과 불화도 겪었다. 하지만 변함없이 철새를 보호하는 그의 열정은 활동과 순수한 마음을 이해한 부인 김주월(44)씨와 이웃들이 이제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갈대밭에 숨어 철새들의 활동을 탐조하고 있는 철원평야 철새지킴이 진익태씨. 그는 "새와 사람의 공존방안을 모색하다보면 분명히 해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새들과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야죠”



18년째 철새 보호에 앞장, 달려 만들어 보급  
“순한 눈빛 · 아름다운 깃털 보노라면 넋 잃어요”  
두루미학교 열고 관찰 요령 · 용어 등 정보 제공  
인식 부족 · 조류독감 공포에 탐조객 줄어 걱정

그가 철새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된 것은 1988년 2월, 집 부근인 남대천에서 죽은 오리 한 쌍을 발견해 박제로 만들어 보관하면서 부터다. 어느날 전문가로부터 박제된 오리기 백두산에만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62년만에 처음 발견된 회귀조인 호사비 오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다.

항상 가까이서 보아온 철새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철새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차츰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간직하고 있다는 하얀 두루미에 관심을 갖게 됐다.

"긴 부리와 곧게 뻗은 긴 목 그리고 우아하고 날렵하게 빠진 두루미의 모습은 고고한 정신을 숭상하던 옛 선비의 자태로 여겨졌습니다. 예로부터 두루미가 천년을 산다고 '학'이라 하는데 실은 50~60년밖에 살지 않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두루미는 전 세계에 걸쳐 15종 뿐인 회귀조. 이중 흰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 여섯 종류가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그는 1992년 2월 9일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베리아 흰두루미와 캐나다 두루미를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두루미 이외에도 작은 황조롱이 등 조류독감에도 없는 미조(未鳥) 세종도 촬영해 세상에 알렸다.

그가 살고 있는 철원은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일본 이즈미시를 경유하는 일종의 중간기착지이다. 그래서 철새도래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마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철원평야를 겨울철새는 두루미 재두루미를 비롯해 청둥오리 기러기등 30종 10만여마리. 이 중 두루미는 800마리가 월동하고 이동시기엔 4000마리까지 목격된다.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와 재두루미, 흑두루미가 같은 지역에서 월동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철원이 유일하다.

그는 올 겨울 아픔을 많이 겪고 있다. 철새들에게 철원산중으로 고난이 닦혔기 때문이다. 12월에는 먹이가 없어 새들이 탈진해 죽기도 했다. 폭설로 저수지가 얼어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AI)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부터다. 철새들이 조류독감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먹



두루미학교 수업장면.

이 기탁자들과 탐조객들이 줄어들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8일까지 철원 두루미축제를 열었지만 일반인들을 설득하는데 역부족이었다.

"새들은 높은 창공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열로 바이러스가 거의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철새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했지만 닭과 오리에 감염되는 가금 인플루엔자(influenza)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철새들과 공존을 모색하던 인근지역 주민들도 일반 사람들의 색안경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한다.

"철새들이 떠나기에 앞서 2월에 고칼로리의 먹이를 섭취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사람들의 옆에는 항상 새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새들의 서식환경이 좋아야 사람도 살 수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도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철원=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이 엄선한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시리즈4탄



인도불교성지순례 (룸비니, 니르바나, 마하보디사원)

7박 8일 2월21일-28일 비자신청관료 2월 10일 마감합니다  
신청금 20만원 동참금 205만원

- 제1일 델리도착
- 제2일 델리, 럭나우, 스라바스티 고속열차이동 스라바스티 | 기원정사(사해트)
- 제3일 룸비니 | 마야메비 사원 | 구릉못 | 아쇼카 석주 순례.
- 제4일 니르바나 사원 | 라마바르 휴머덤 | 다비터 순례후 바이샬리 | 파트나
- 제5일 나란다 불교대학터 | 죽림정사 | 영축산 | 밤비사라 감옥터 | 보드가야
- 제6일 마하보디사원 | 니런선하(Niranjana River) | 칠선처 | 금강보좌
- 제7일 갠지스강의 일출 감상 및 선상법회 및 항하사 순례 | 다메크 수도파 | 아쇼카석주 및 사르나트 박물관 견학 바라나시에서 국내선(비행편)이동
- 제8일 델리 출발 인천 도착

일본큐슈크루즈여행(구마모토, 아소산, 벳부, 지옥온천)

4박5일 2월16일-20일 동참금55만원

선박료·호텔및식사(선내·외식)·관광입장료·부두세·항만세.  
여행보험(1억원가입) 가이드및기타비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 제1일 KTX 15 서울 | 부산 시모노세키 항발
- 제2일 씨사이드모모치 해변 관광 | 다자이후천만공: (수험생어머니들의 합격기원으로 유명한 사원) | 구마모토 이동 | 구마모토성 관광
- 제3일 사루마와시 원승이쇼 | 아소화산 | 쿠사렌리 | 유노하나, 해지옥, 지옥온천 순례 | 벳부만 전망대 관광
- 제4일 벳부 | 하모니랜드 관광 | 우사신궁 관광 | 시모노세키항
- 제5일 KTX 84 | 서울역

